

한국형 축구선수 정신력요인에 대한 귀납적 내용분석

유하나¹, 최재원^{2*}

¹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 학생, ²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Inductive Content Analysis of Mental Toughness Factors of Korean Football Players

Ha-Na Yoo¹, Jae-Won Choi^{2*}

¹Student, Division of Sport Science, Chung-Ang University

²Professor, Division of Sport Science, Chun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축구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축구선수 정신력의 구성개념을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은 대한축구협회에 소속되어있는 축구선수 100명과 축구지도자 자격증 취득 교육연수회에 참여하는 축구지도자 100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지를 배포하여 귀납적 내용분석을 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형의 축구선수 정신력의 귀납적 내용분석 결과, 451개의 원자료에서 세부영역은 11개, 일반영역은 6개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일반영역 요인은 깡다구, 정신무장, 초월, 혼연일체, 평정심, 집중력으로 나타났다. 둘째, 축구선수와 지도자에 따른 한국형 축구선수 정신력에 대한 결과에는 선수와 지도자 모두 가장 높은 요인으로 깡다구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높은 요인은 선수는 정신무장, 지도자는 혼연일체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축구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는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한국형 축구선수 정신력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 정신력, 축구선수, 개방형 질문지, 귀납적 내용분석, 질적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struct of Korean Version of Mental Toughness through Open-ended Questionnaire for soccer Players and coach. Data collection was inductively analyzed by distributing open questionnaires to 100 soccer players belonging to the Korean Football Association and 100 soccer coaches who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for obtaining a soccer coach's license. The resulting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inductive content analysis of korean version soccer players mental toughness, 11 factors were derived in the detailed area and 6 factors in the general area. Secondly, in the results on the mental toughness of Korean version soccer players according to soccer players and coaches, both players and coaches were found to be the highest factor, kkgangdagu. I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efforts to reduce the improving performance for soccer players and coaches.

Key Words : Mental Toughness, Soccer Players, Open-ended Questionnaire, Induc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Research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Research Scholarship in 2018

*Corresponding Author : Jae-Won Choi(jaewonc@cau.ac.kr)

Received March 3, 2022

Revised April 1, 2022

Accepted April 20, 2022

Published April 28, 2022

1. 서론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스포츠 선수가 우수선수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요인으로 '정신력'을 손꼽고 있다고 하였으며[1-3], 심리적 요인들 중 정신력이 우수 운동선수들이 가져가야 할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4-6]. 이렇게 스포츠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정신력은 스포츠 상황에서 불리한 환경이나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승리나 목표달성을 위해 갖는 강인한 의식이며[7], 이러한 정신력에 대한 연구는 서구사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정신력은 Mental Toughness(스포츠심리학분야)와 hardiness(일반심리학분야)개념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정신력에 대한 스포츠심리학의 관심은 심리적 강인함[8]이나 고통인내 및 승부욕[9]등 역경을 견디는 심리자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초창기 학자들은 정신력의 중요성을 밝히기 위하여 이를 개념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신력 개념들은 압박, 스트레스 또는 역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수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 능력[1, 10, 5], 뛰어난 심리기술의 소유[11, 12], 실패나 좌절을 겪을 때, 강한 성공의지를 발휘하여 극복하거나 회복하는 능력[13, 14], 자신과 상대에게 지지 않으려는 의지[13, 15], 등으로 폭넓고 다양한 관점에서 정신력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폭넓고 다양한 정의와 개념들은 정신력에 대한 명확함 보다는 혼란을 일으켰으며[5], 이는 부정확한 정신력의 척도화를 야기하였다.

정신력의 핵심요인을 구별하는 척도개발 연구는 대표적으로 Loehr의 'Athletic Excellence : Mental Toughness Training for Sports' 책을 통하여 정신력 질문지 PPI(Psychological Performanxe Inventory)를 개발하면서부터 정신력 연구는 발전되어 왔으며[11], 이후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측정도구 개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수한 고교선수들을 대상으로 정신력 측정도구를 개발한 MTI(Mental Toughness Inventory)질문지는 64개의 문항과 1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하위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 목표, 스트레스최소화, 긍정성 등으로 구성되어있다[16]. 또한 600명이상 다양한 종목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MTQ48(Mental Toughness Questionnaire 48) 측정도구 개발 질문지는 총 48개의 문항으로 하위요인은 도전, 전념, 통제, 자신감의 4개의 요

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13], 다양한 종목의 남녀 선수 1142명을 대상으로 한 SMTQ(Sport Mental Toughness Questionnaire) 정신력 측정도구 질문지는 14개의 문항으로 자신감, 결의, 통제력과 같이 3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17].

이처럼 서구사회에서 진행된 다양한 정신력 척도 연구들은 현재까지도 후속연구를 통하여 제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명확하지 못한 개념적 정의와 타당성 검증에 있어 제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자들은 정신력 연구를 확장하여 현재까지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서구사회의 정신력 연구에 대한 제한점과 문제점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아직까지 국내 대부분의 정신력 연구는 초창기 개발된 Loehr의 PPI 측정도구를 사용하거나 서구사회의 정신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1].

이러한 서구사회의 측정도구는 아직까지 개념적으로 명확하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사용하기에는 정식 번안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정신력 관련 선행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서구사회의 척도를 사용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심리학 연구의 관점에서 우리선수들의 고유한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문화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때 비교 문화적 관점과 토착심리학적(Folk psychology) 관점에서 한계점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의 스포츠 심리학이 서구사회를 바탕으로 이론과 체계가 짜여 있음으로 서구 사회와 다소 다른 우리나라 선수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김병준과 최상진은 비교 문화적 관점과 토착심리학적(Folk psychology)관점에서 국내 스포츠 상황에서 말하는 정신력의 개념은 서구 스포츠 상황과 차이가 날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속한 집단과 사회문화적 특성이 인간의 행동과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서구인을 바탕으로 둔 정신력 측정도구들은 심리학적 이론과 체계가 한국인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부적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18, 19].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김병현 등과 김원배가 국내 스포츠 환경과 한국 선수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신력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7, 20]. 이 연구는 정신력 영역에 확장된 연구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김원배의 투기종목 선수들을 대

상으로 한 정신력 측정도구 개발은 국내의 정신력 관련 연구들을 활발하게 진행하도록 많은 기여를 하였다 [21-26]. 하지만 후속연구들의 종목을 살펴보면 투기종목과 개인 스포츠 종목으로 국한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의 측정도구 개발에서 개인종목이나 투기종목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원인을 유추 해볼 수 있다. 이러한 측정도구는 국내의 팀 스포츠나 다른 종목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제한점들 토대로 정신력 연구의 확장을 위해 비교 문화적 관점과 토착심리학적 관점을 반영한 한국형 축구선수 정신력의 요인을 명확하고 심도 있게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축구라는 변인은 과거 국내외의 선행연구의 제언과 최근 정신력에 대한 국외연구동향을 근거로 설정하였다. 국외에서는 개인 스포츠 종목에서 집단 스포츠 종목으로 연구가 변화하며 진행되고 있으며[6,27-29], 이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팀 스포츠인 축구를 중심으로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4,30-33].

특히 축구는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집단과의 관계와 주변의 환경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심리적 기술 중 정신력은 축구경기에 필수적인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나타내고 있으며[34], 두 시간에 가까운 경기 시간동안 운동장을 쉬 없이 뛰며 상대와 몸싸움을 해야 하는 축구 특성상, 체력과 기술의 한계에서 힘든 고통을 감소시키고 승리에 대한 욕망을 배로 증가시키는[12] 정신력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축구상황에서 신체적,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인 정신력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35], 축구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명확한 개념적 정의를 확립하고 요인을 심도 있게 규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정신력 연구의 측정도구개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신력 연구의 확장을 도모하고자한다. 나아가 현장에 있는 축구선수와 코치, 감독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한축구협회(Korea Football Association)에 소속되어있는 선수와 KFA(Korea Fo

otball Association), AFC(Asian Football Confederation)에서 공동주관하는 축구지도자 자격증 취득 교육연수회에 참여하는 축구지도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대상인 선수 100명, 지도자 100명,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집방법은 모든 모집단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비확률 표집방법인 임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3월 ~ 2021년 6월까지 총 3개월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에게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유선으로 충분히 설명한 후 우편 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수집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무기입 자료 및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 자료 선수 17부, 무소속으로 기재하였던 지도자 자료 25부, 총 42부는 제외하였으며 최종 158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 중 지도자가 참여한 연수회는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교육아카데미에서 진행하고 있는 필드(Field) 지도자 교육과정으로 A급은 국내 모든 성인 팀 및 각급 대표 팀의 감독 자격, B급은 국내 모든 성인 팀의 코치 자격, C급은 청소년 팀의 코치와 유소년 팀의 감독 자격, D급은 만 12세 이하 유소년 팀의 코치와 만 8세 이하의 유소년 팀 감독 자격이 주어진다. 각 과정은 이전 과정을 취득해야만 다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대부분의 참여자는 현장지도 경력이 있는 코치 및 감독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ategory	Players	Coach
Age	10's	28	0
	20's	45	18
	30's	10	36
	40's +	0	21
	total	83	75
Team	Middle and High School	25	55
	University	29	10
	Professional	29	10
	total	83	75

2.2 조사도구

본 연구는 한국형 축구선수 정신력에 대한 구성개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지(Open ended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개방형 질문지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바탕으로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론을 도출하고 현상에 대한 구성요인을 귀납적으로 이끌어 내는 연구방법이다[36]. 따라서 비교 문화적 관점과 토착심리학적 관점에서 한국형 축구선수의 정신력의 구성개념을 확립하는데 유효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방형 질문지의 구성은 연구대상자의 연령, 소속 등을 묻는 기초 배경문항을 제시하였으며 자료 수집 전 연구대상자가 한국형 축구선수 정신력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정신력에 대한 개념을 기재하였다. 또한 개방형 질문지의 문항 구성은 “귀하께서 생각하는 축구선수들이 스포츠상황(훈련, 시합)에서 경험하거나, 발휘하는 정신력은 어떤 것인지 심사숙고하시어 5가지 이상 말로 표현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로 하여 질문답변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개방형 질문지 문항은 타당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스포츠심리학 교수 2인, KFA축구지도자 1인, 질적 연구 경험자 1인의 전문가집단 회의를 통해 최종 개방형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개방형 질문지를 통하여 수집된 연구참여자의 진술 내용은 Excel 2016 이용하여 기록되었다. 이때 진술 내용(원자료)은 편집 없이 진술 내용 그대로 기록하였다. 이후 기록된 진술 내용은 자세하게 각각의 원자료를 구분하여 입력하였으며(coding), 귀납적 내용분석 절차를 통하여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개방형 질문지를 통하여 도출된 축구선수들의 정신력 원자료는 총 451개였다. 귀납적 내용분석(inductive content analysis)은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방법을 사용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진행되었으며[37,38], 이는 큰 덩어리와 같이 비 구조화된 자료를 문장으로부터 면밀한 해석을 통해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의미 있는 원자료에서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구성된 의미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방법이다[39]. 본 연구에서의 귀납적 내용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와 스포츠심리학 교수 2인, 질적 연구 경험 박사 1인, KFA 축구지도자 1인과 같이 5명의 전문가집단을 구성하여 지도자들이 응답한 설문내용에 대하여 친숙해지도록 수차례 숙독하였다. 이후 주요관점을 목록화하고 개요화(outline) 하였으며 범주들을 정의할 기초문장으로 쓰일 문장과 문단을 부호화(coding)하였다[40]. 부호화는 사전 목록화된 단어를 원자료의 어두에 기입하고 그 후에 정렬(sorting)하였다.

둘째, 전문가집단은 축구선수와 지도자들이 진술내용 중에 의미 있는 응답이라고 간주되는 내용을 원자료를 통하여 도출하였으며 이것을 공통적인 주제로 분류하였다. 또한 부호화된 원자료는 각각 잘 어울리는지, 범주 간에 차이가 뚜렷한지 라는 사고를 염두하며 의미의 구별성과 유사성에 맞게 범주화 하였다[41]. 이러한 과정에서 유사성과 공통성에 따라 일반적인 ‘세부영역’으로 통합하고 다시 그 의미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일반영역’으로 통합하는 3단계 범주화 방법을 채택하였다[42].

셋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료, 세부영역, 일반영역까지 도출하는 과정을 전문가집단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분류하였다. 또한 전문가집단이 서로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회의를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전문가 집단전원이 동의한 내용만을 범주화하는 다각도 검증(triangulation)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것은 연구자가 원자료를 범주화 하는 과정에서 모순적이지 않고 다른 전문가집단과 비슷하거나 동의한 의견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연구의 결과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40].

3. 연구결과

3.1 한국형 축구선수 정신력 내용분석

한국형 축구선수 정신력에 대한 개방형 질문지 응답은 귀납적 내용분석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분류 및 범주화가 이루어졌다. 결과는 Table 2과 같다.

결과는 총 451개의 원자료가 도출되었으며, 귀납적 내용분석을 통하여 세부영역 11개, 일반영역 6개로 범주화 하였다. 6개의 일반영역에는 ‘깡다구’, ‘정신무장’, ‘초월’, ‘혼연일체’, ‘평정심’, ‘집중력’ 요인이 도출되었다.

6개의 일반영역 요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깡다구’ 요인은 총451개의 원자료 중 139개로 30.8%의 반응비

을 나타내었다. 이는 한국형 축구선수 정신력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세부 영역으로는 인내/ 끈기와 투혼으로 도출되었다. 중요 원자료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도 인내하는 힘, 체력이 바닥났을 때 악바리로 버티는 것, 힘든 상황에도 악과 깡으로 버티는 힘, 강팀을 상대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반응비율을 나타낸 요인은 ‘정신무장’으로서 86개로 19.1%의 반응비율을 나타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정신무장과 긍정적사고 요인으로 2개 세부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중요 원자료는 이기고 있어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목표달성을 위해 정신을 무장하는 것, 굳센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는 것, 실수해도 긍정적으로 임하는 것, 긍정적인 생각으로 경기하는 것 등을 한국형 축구선수 정신력 요인으로 진술하였다.

다음요인으로는 원자료 중 76개, 16.9%의 반응비율을 나타낸 ‘초월’요인이다. 세부사항으로는 자기한계초월, 위기상황초월, 체력한계초월로 3가지 요인으로 세

부영역이 도출되었으며 중요 원자료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힘, 심리적 압박을 극복하는 것,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힘, 숨이 차고 힘들어도 한 발짝 더 뛰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음요인으로는 66개, 14.6% 반응비율을 나타낸 ‘혼연일체’이다. 혼연일체는 단일요인으로 중요 원자료는 팀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것, 팀이 혼연일체가 되는 것, 팀이 같은 목표로 뛰는 것 등으로 진술하였다.

다음은 ‘평정심’ 요인으로 총 451개의 원자료 중 45개, 10.0%의 반응비율을 나타냈다. 평정심은 단일요인으로 중요 원자료는 경기 중 냉정함을 유지하는 힘, 실수해도 빨리 잊고 경기에 임하는 힘, 어떠한 상황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힘 등으로 진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집중력’ 요인은 39개, 8.6%의 반응비율이 나타났으며, 단일요인으로서 중요 원자료는 플레이에 집중하는 것, 실수해도 바로 집중하는 힘, 한계가 와도 집중하는 것 등으로 진술되었다.

Table 2. Outcome of Inductive Analysis

Raw data	Details area	Factors
Perseverance not to give up even when it's hard The power to persevere even if you run out of breath Persevering when your stamina runs out Power to endure difficult situations Attitude to do our best even when we meet a strong team	Tenacity/ Endurance (96/69.0%)	Kkangdagu (139/30.8%)
Play soccer like persistently Demonstrating fighting spirit in a game situation A heart that is not afraid when facing a strong team, the will to win The power to use all of your stamina Fighting spirit	Fighting Spirit (43/31.0%)	
Thinking that you are losing even if you are winning Arming the mind to achieve goals playing games with a strong heart Playing like a strong team even when you meet a weak team	Mental Armament (45/52.3%)	Mental Armament (86/19.1%)
Think positive even when you make mistakes playing games with positive thoughts Confidence that you can A positive thinking	Positive Thinking (41/47.7%)	
The power that exerts more than that when it reaches its limit The power to go beyond one's own limits Power to overcome even if you don't have confidence Overcoming when the limits of the mind come overcoming psychological pressure	Self- Transcendence (22/28.9%)	Transcendence (76/16.9%)
Running one more step when you're losing the game overcoming difficult situations The strength to overcome even if you lose Overcoming difficult situations in training and competition Power to overcome repeated mistakes	Transcend Crisis (14/18.4%)	
The power to take one more step even if it's hard to breathe The strength to overcome when it is physically difficult The strength to run to the end even if the strength of the legs is lost Even if my physical strength is hard, I run one more step	Physical Limit Transcend (40/52.6%)	

(Continued)

Table 2. Outcome of Inductive Analysis

Even in difficult circumstances, the team is one The team moves with the same mind Running as one for the team's victory The team becomes one A team running towards the same goal	Unitedness (66/100%)	Unitedness (66/14.6%)
Power to stay cool during the game The power to forget and play game even if I make a mistake Being booed by the crowd and not shaking Showing the same performance despite external influences Power that doesn't get disturbed in any situation	Composure (45/100%)	Composure (45/10.0%)
Focusing on the play Power to focus for 90 minutes Power to focus even if I make a mistake Concentrating until the end even if you lose one point Concentrating even when there are limitations	Concentration (39/100%)	Concentration (39/8.6%)
451	11	6

Table 3. Frequency and ratio of athlete and Coach

Factors	Category	Athlete(n=83)	Coach(n=75)	Case	x ² (p)
		Frequency(%)	Frequency(%)		
	Kkangdagu	76(27.8%)	63(35.4%)	139	29.904 (.000)
	Mental Armament	55(20.1%)	31(17.4%)	86	
	Transcendence	44(16.1%)	32(18.0%)	76	
	Unitedness	30(11.0%)	36(20.2%)	66	
	Composure	39(14.3%)	6(3.4%)	45	
	Concentration	29(10.6%)	10(5.6%)	39	
	Total	273(100%)	178(100%)	451	

3.2 선수와 지도자에 따른 한국형 축구선수 정신력 분석

Table 3은 선수와 지도자에 따른 한국형 축구선수 정신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이다. 귀납적 내용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깡다구, 정신무장, 초월, 혼연일체, 평정심, 집중력의 6개 일반영역 요인이 선수와 지도자에 따른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선수와 지도자 모두 깡다구 요인이 가장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로 가장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는 요인은 선수는 정신무장, 지도자는 혼연일체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스포츠선수가 우수선수로 성장하는데 중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정신력에 대한 구성요인을 비교 문화적 관점과 토착심리학적관점에서 한국 사회에 맞게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의 제언과 국외연구의 동향[24,30-33]에 발맞추어 대표적인 단체종목인 축구를 대상으로 한국형 축구선수 정신력의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지의

귀납적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수와 지도자가 진술한 원자료는 총 451개이며 귀납적 내용분석을 통하여 11개의 세부영역과 6개의 일반영역으로 범주화 되었다. 범주화된 6개의 일반영역은 '깡다구', '정신무장', '초월', '혼연일체', '평정심', '집중력'으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형 축구선수 정신력에 대하여 한국사회에 적합하고 현장중심적인 결과들이 의미 있게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체종목이라는 특징으로 기존에 개발되었던 한국의 정신력 척도와는 다른 요인들이 도출되어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한국형 축구선수의 정신력 구성요인을 기존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첫째, 한국형 축구선수 정신력 요인으로 가장 높은 반응 비율이 나타난 요인은 '깡다구'이며 이 요인은 선수와 지도자간의 교차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에도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난 요인이다. '깡다구'의 세부요인으로는 인내/끈기, 투

혼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김원배의 연구에서 분투노력, 인내력, 정청희 등의 연구에서는 끈기와 같은 요인으로 상통하는 요인이다[7,43]. 국외연구에서는 Loehr의 정신력 측정도구개발 연구에서 유사한 요인으로 동기수준을 바라볼 수 있으나 그밖에 다른 국외연구에서는 '깡다구'와 같은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11].

이러한 이유는 '깡다구' 요인이 악착같이 버티어 나가는 오기, 배짱, 뱃심과 같이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한국인들만의 특유의 정신을 담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김원배[7]의 연구에서도 선수들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발휘하여 밀어붙이는 기운을 '악'과 '깡'으로 표상화 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상통하는 맥락이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축구종목은 선수들의 불굴의 투혼과 인내가 국외 선수들에 비해 국내 정상급 선수들에게 유독 강하게 나타나는 한국 축구선수들만의 고유한 정서적 특성이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44].

둘째, '정신무장'요인은 세부요인으로 정신무장과 긍정적 사고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연구의 정청희, 김원배, 이춘만의 긍정적인 생각, 김원배의 노력, 최선, 전심전력과 같은 세부요인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7,42]. 국외연구에서는 Joenes 등의 마음가짐, 태도요인이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에너지 요인으로 나타나 심리기술훈련의 관점에서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11,12,16,45]. '정신무장'요인은 싸울 태세나 준비를 갖춘다는 의미로서 한국사회에서는 단순히 심리기술훈련과 같은 긍정적 사고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경기나 운동 상황에 앞서, 정신을 무장하고 마음을 준비한다는 더욱 강한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한국 축구는 과거 오랜 역사에서부터 단순히 스포츠의 개념을 넘어 국가를 위해 국위선양을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며 선수들은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삶의 질[46]을 높이는데 힘써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축구는 특히 일본과의 경기에서 유난히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 정권에서의 축구국가대표는 한일전에 출전하면서 일본에 지면 현해탄에 빠지겠다는 이름을 적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축구역사를 바탕으로 2018년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일본

에 지면 비행기에서 뛰어 내리겠다는 출사표를 던지기도 하였다[47]. 이처럼 축구경기는 한국문화에서부터 쏟아지는 축구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응원에 선수들은 더욱 강한 정신무장과 사고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며,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사회에 적합하고 현장중심적인 정신력 요인이 결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초월'요인은 어떠한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는다는 뜻으로 김원배의 연구에서는 한계극복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초월은 힘든 상황에서 단순히 버티어 나간다는 끈기나 인내를 표현한 것이 아닌, 자신의 한계를 이겨 나아가고 힘든 상황을 버텨넘어 헤쳐 나가는 관점에서의 초월로 개념화하여 선행연구와 일부 다른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7]. 또한 국외연구에서는 '초월'과 유사한 언어로 회복탄력성(Resilience)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위기상황을 대처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힘의 개념으로서 심리기술훈련의 개념에 가까운 개념들로 사용되고 있다[48]. 본 연구에서는 축구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실증적인 자료를 통하여 '힘들어도 한발 더 뛰려고 하는 힘, 자신의 한계가 와도 뛰어 넘으려고 하는 힘'과 같이 한계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으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넷째, '혼연일체' 요인은 본 연구를 제외하고 국내와 국외연구 모두 정신력 선행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인이다. 국내의 정신력 측정도구 연구는 투기종목 선수 및 개인종목 선수에게만 한정되어 개발되었으며 국외에서는 Daniel 등이 개인스포츠 종목과 팀 스포츠 종목의 정신력이 다를 것이라는 필요성으로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혼연일체'와 같은 구성요인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29]. 그 외의 팀 스포츠와 개인스포츠의 정신력을 비교하는 연구[49-51] 모두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의 '혼연일체'의 요인이 팀 구성원의 행동과 의지가 차이가 없이 한 덩어리가 된다는 개념으로 한국 사회의 독특한 행동양식인 '우리성'을 나타내는 요인이기 때문이며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연구 결과라 판단된다.

스포츠 현장에서는 우리팀, 우리편, 우리 동료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팀 구성원간의 단합과 결속 등을 다지는 경우가 있다[52]. 이것은 분명 '나'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우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

는 정서적 감정인 '정'을 나타내는 의미이며 서구사회에서는 우리주의를 찾아볼 수 없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53]. 특히 팀 구성원의 화합과 운동 수행의 관계를 규명한 집단 응집력(Group Cohesiveness)은 서양의 개인주의적 문화 체계화에서 발달된 개념과 도구들이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혼연일체'와는 다른 개념이다. 특히 축구와 같이 22명의 선수가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승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기이므로 승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기량뿐만 아니라 팀 구성원 전체의 단합과 집중력이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스포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축구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진술한 실증적 자료에서는 '팀이 하나가 된다, 한 마음이 된다.' 등의 더욱 단결력 있고 강한 의미로 '혼연일체'를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평정심' 요인은 Loehr의 주의조절, 각성조절, Bull 등 의 자기조절력, Middleton 등 의 스트레스 최소화 등의 요인과 유사한 요인이다[11,12,16]. 국내의 김원배 연구에서는 기타요인에서 소수 찾아볼 수 있는 요인이며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인이다[7,20,42]. '평정심' 요인은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동요되지 않고 편안한 감정을 유지하는 마음을 의미하며 과거 한국의 정신력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축구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요소임을 본 연구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 중 냉정함을 유지하는 힘, 관중의 야유에도 휘둘리지 않는 것' 과 같은 실증적 자료의 연구결과는 과거에서부터 선수들에게서 기사를 통해 많이 전해졌던 현장의 소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황선홍 선수는 축구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평정심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54], 박주호 선수는 축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55]. 이와 같이 축구는 제한된 시간 안에 자신, 팀원 그리고 상대, 관객과 같은 변화되는 환경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며 자신을 제외한 제3의 선수들과 함께 진행해야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평정심을 잘 유지하여 자신의 기량을 펼쳐야 한다. 또한 오랜 시간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평정, 팀과 함께 호흡을 잘 맞춰야하는 평정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집중력' 요인은 국외와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정신력의 요인으로 손꼽혔던 요인이

다. Bull 등, Middleton 등, Jones 등 은 과제집중, 몰입, 집중력과 같은 요인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국내의 정청희 등, 김원배의 집중력 요인도 본 연구와 상통하는 요인이다[7,12,14,16,42]. 이는 '집중력' 요인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국외와 국내 모두 정신력 연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의 단체종목인 축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이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힘으로서 선수들에게 꼭 필요한 요인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축구선수들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형 축구선수 정신력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지의 귀납적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한국형 축구선수 정신력에 대한 구성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수집된 원자료는 총 451개이며 귀납적 내용분석을 통하여 11개의 세부영역과 6개의 일반영역으로 범주화 되었다. 범주화된 6개의 일반영역은 '깡다구', '정신무장', '초월', '혼연일체', '평정심', '집중력'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상황에 맞는 정신력 연구의 측정도구개발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현장에 있는 축구선수와 코치, 감독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스포츠 정신력에 대한 연구의 확장으로서 국내 단체종목의 정신력에 대한 후속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본 연구 과정 중 다소 부족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차후의 연구와 미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지 문항의 참여자 연령, 성별과 같은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심도 있게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를 고대한다.

둘째, 한국형 축구선수 정신력을 요인탐색에 그치지 않고 정신력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국내 정신력 측정도구 개발은 개인종목 대상이나 투기종목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체종목인 축구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며 국내의 정신력 연구의 확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사회에 맞는 스포츠 정신력 연구는 축구종

목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 느끼고 발휘하는 정신력 연구가 진행 되어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형성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D. Gould, K. Hodge, K. Peterson & L. Petlichkoff. (1987).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Coach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Intercollegiate Wrestling Coaches. *The Sport Psychologist*, 1, 293-308.
DOI : 10.1123/tsp.1.4.293
- [2] D. Gould, K. Dieffenbach & A. Moffatt. (2002).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ir development in Olympic champion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4, 172-204.
DOI : 10.1080/10413200290103482
- [3] N. Durand-Bush & J. H. Salmela. (2002).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expert athletic performance: Perceptions of world and Olympic champion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4(3), 154-171.
DOI : 10.1080/10413200290103473
- [4] H. Davis & L. Zaichkowsky. (1998). Explanatory style among elite ice hockey athletes. *Perceptual & Motor Skills*, 87, 1075-1080.
DOI : 10.2466/pms.1998.87.3.1075
- [5] G. Jones, S. Hanton & D. Connaughton. (2002). What is this thing called mental toughness? An investigation of elite sport performer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4, 205-218.
DOI : 10.1080/10413200290103509
- [6] J. Coulter, J. Mallett & A. Singer. (2016). A subculture of mental toughness in an Australian Football League club.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22, 98-113.
DOI : 10.1016/j.psychsport.2015.06.007
- [7] W. B. Kim. (2001). *An Analysis of the Mental power Construct and Development of mental power Inventory in Korean Competitive Sport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8] S. C. Kobasa. (1979). Stressful life events, personality and health: An inquiry into hard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11.
DOI : 10.1037/0022-3514.37.1.1
- [9] K. Porter & J. Foster. (1986). *The Mental Athlete : Inner Training For Peak Performance*. W.M.C. Brown Publishers, Iowa.
- [10] J. E. Loehr. (1995). *The new mental toughness training for sports*. New York: Plume.
- [11] J. E. Loehr. (1982). *Athletic excellence: Mental toughness training for sports*. New York: Plume.
- [12] S. J. Bull, J. G. Albinson & C. J. Shambrook. (1996). *The Mental Game Plan*, Fotodirect Ltd. Brighton, UK.
- [13] P. J. Clough & K. Earle. (2002). When the going gets tough: A study of the impact of mental toughness on perceived demands. *Journal of Sports Sciences*, 20(1), p. 61.
- [14] G. Jones, S. Hanton & Connaughton, D. (2007). A framework of mental toughness in the world's best performers. *The sport Psychologist*, 21, 243-264.
DOI : 10.1123/tsp.21.2.243
- [15] S. J. Bull, C. J. Shambrook, W. James & J. E. Brooks. (2005). Toward an understanding of mental toughness in elite English cricketer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7, 209-227.
DOI : 10.1080/10413200591010085
- [16] C. S. Middleton, W. H. Marsh, J. A. Martin, E. G. Richards & C. Perry. (2004). *Discovering mental toughness: A qualitative study of mental toughness in elite athletes*. Research Centre Biannual Conference, Berlin.
- [17] M. Sheard, J. Golby & A. Van Wersch. (2009). Progress towards construct validation of the Sports Mental Toughness Question-naire(SMTQ).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5, 186-193.
DOI : 10.1027/1015-5759.25.3.186
- [18] B. J. Kim. (2003). Measuring Self-management Practices in Korean Athletes.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14(4), 125-140.
- [19] S. C. Choi. (1991). A Psychological Conceptualization of Korean ' Hahn ' Concept and It's Empirical Evaluation.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339-350.
- [20] B. H. Kim, H. K. Lee & H. J. Eom. (1998). Development of A Korean Mental Toughness. *Sports Science Research*, 9(2), 25-38.
- [21] J. K. Lee. (2005). Influences of Golfers` Mental Condition on their Attention. *Korea sport research*, 16(5), 193-202.
- [22] S. H. Kim, G. T. Ro & J. T. Shin. (2010). The Study of Exploring Conception of Mental toughness of Taekwondo Players through Grounded Theory

- Analytic Methods. *Klliance of Martial Arts*, 12(3), 35-47.
DOI : 10.35277/kama.2010.12.3.35
- [23] J. M. Kim, Y. W. Kim & Y. S. Bae. (2015). The Effects of Self-talk on Mental Toughness and Perceived Performance in Ssireum Athletes.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17(3), 57-66.
- [24] I. S. Kim & J. A. Choi. (2016).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A/B Type Behavior Pattern, Mental Toughness, and Sport Commitment of Soccer Players i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20(4), 175-187.
DOI : 10.15831/JKSSPE.2016.20.4.175
- [25] J. A. Nam & Y. K. Yun. (2017). What ignites mental toughness for taekwondo players in training and competition?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8(2), 474-486.
DOI : 10.24985/kjss.2017.28.2.474
- [26] S. H. Jang. (2019). The effects of self-management and mental strength of judo players on perceived performance. *Korea Society for Martial Art*, 13(4), 153-173.
- [27] R. Thelwell, N. Weston & L. Greenlees. (2005). Defining and Understanding Mental Toughness within Soccer,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7, 326-332.
DOI : 10.1080/10413200500313636
- [28] F. Daniel, Gucciardi., S. Gordon & A. Dimmock. (2008). Towards an Understanding of Mental Toughness in Australian Football,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20, 261-281.
DOI : 10.1080/10413200801998556
- [29] F. Daniel, Gucciardi S. Gordon & A. Dimmock. (2009).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a mental toughness inventory for Australian football,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0(1), 201-209.
DOI : 10.1016/j.psychsport.2008.07.011
- [30] J. Jooste, L. Van den Berg & B. J. Steyn. (2014). Psychological skills, playing positions and performance of African youth soccer teams. *South African Journal for Research in Sport,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36(1), 85-100.
DOI : 10520/EJC151477
- [31] F. G. Garcia & J. Santana. (2018). Exploring mental toughness in soccer players of different levels of performance. *Revista iberoamericana de psicología del ejercicio y el deporte*, 13(2), 297-303.
- [32] W. M. Kim. (2017). *A study on effects of Self-management on Sport Confidence and Mental toughness in Adult soccer player*. master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Kyonggi
- [33] D. H. Lee & J. H. Lee. (2021). The Role of Cerebellum in the Eye-hand Coordination Task with Different Spatial Offsets. *Korea sport research*. 20, 119-137.
- [34] J. Jooste, L. Van den Berg & B. J. Steyn. (2014). Psychological skills, playing positions and performance of African youth soccer teams. *South African Journal for Research in Sport,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36(1), 85-100.
DOI : 10520/EJC151477
- [35] H. S. Kim. (2010). Influence of Self Management and Mental Power on Athletic Performanc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0(8), 391-397.
DOI : G704-001475.2010.10.8.031
- [36] A. Strauss & J. Corbin.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 [37] H. N. Yoo, J. W. Choi, S. G. Kang & K. H. Lee. (2021). Psychological Injury Factors of Excellent Alpine Snowboard Athlet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1), 143-155.
DOI : 10.22156/CS4SMB.2021.11.01.143
- [38] H. J. Keum. (2019). A Research on PBL Implementation Strategy of Faculty Members Selected as a PBL Best Practicer.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10), 163-169.
DOI : 10.22156/CS4SMB.2019.9.10.163
- [39] M. H. Yang. (2001). Qualitative Research as a Legitimate Method for Phenomenon Exploration in Phys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7(0), 145-156.
- [40] Y. S. Lincoln & E. G.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 [41] J. H. Huh & Y. Jin. (2004). The Self Management Strategies of Korean National Athletes: Qualitative Research.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15(3), 27-52.
- [42] J. W. Choi, S. G. Kang, K. D. Kang & H. Y. Jung. (2011). An In-depth Analysis on Youth's E-sports Participation Motivation.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45(1), 621-634.
DOI : 10.51979/KSSLS.2011.08.45.621
- [43] C. H. Chung, W. B. Kim & C. M. Li. (1998). Development of the Mental Toughness Inventory

for High School Athletes. *The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463-474.

- [44] J. T. Shin, S. H. Kim & Y. S. Park. (2009).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for Assessing Tenacity of Internal Top Level Athlete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36(2), 755-772. DOI : 10.51979/KSSLS.2009.05.36.755
- [45] G. Jones, S. Hanton & D. Connaughton. (2007). A framework of mental toughness in the world's best performers. *The sport Psychologist*, 21, 243-264.
- [46] K. Y. Yeun. (2008). Structure for the Enactment of Fundamental Law of Sport in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11(4), 113-143. DOI : 10.19051/kasel.2008.11.4.113
- [47] S. W. Park. (2019). *From 'Hyunhaetan Memorandum' to 'Lee Kang-in National Anthem', a fighting spirit between Korea and Japan*. KBS NEWS (Online).<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63572&ref=A>
- [48] E. Waters & L. A. Sroufe. (1983). Social competence as a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al review*, 3(1), 79-97. DOI : 10.1016/0273-2297(83)90010-2
- [49] A. Kumar. (2017). A comparative study of mental toughness between team sports and individual sports. *International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Sports and Health*, 4(5), 182-184.
- [50] S. Gordon. (2012). Strengths-based approaches to developing mental toughness: Team and individual. *International Coaching Psychology Review*, 7(2), 210-222.
- [51] S. Fourie & J. R. Potgieter. (2001). The nature of mental toughness in sport. *South African Journal for Research in Sport,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23(2), 63-72. DOI : 10520/EJC108724
- [52] J. Yoo & S. J. Park. (2003). Sport "Weness" Profiles in Korean Athletes.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14(3), 155-164.
- [53] J. S. Choi. (2000). The reality of Korean collectivism. *social criticism*, 25, 37-46.
- [54] Kyunghyang Newspaper. (2010). *Rating instead of resonance, That's how you get skills*. <https://www.khan.co.kr/sports/worldcup/article/201006101759095>
- [55] Y. G. Jeon. (2020). *Park Joo-ho 'Revived passion for soccer'*. Sports Chosun (Online).

<https://sports.chosun.com/news/news.htm?id=202005050100017160001010&ServiceDate=20200504>

유 하 나(Ha-Na Yoo)

[정회원]



- 2018년 8월 : 중앙대학교 스포츠산업정보학과 석사
- 2020년 8월 : 중앙대학교 스포츠산업정보학과 박사 수료
- 관심분야 : 스포츠심리학, 운동심리학
- E-Mail : llhn55@cau.ac.kr

최 재 원(Jae-Won Choi)

[정회원]



- 1993년 2월 : 한양대학교 체육학과 (이학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체육대학 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심리학, 골프
- E-Mail : jaewonc@cau.ac.kr